



즉시 배포용: 2025년 1월 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재향 군인 및 제복 입은 직원의 자살 예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달러 지원 계획 발표

CARES UP 이니셔티브, 트라우마 및 정신 건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재향 군인 단체, 응급 구조 대원 및 교정 기관에 6만 달러 제공

주지사의 2025년 회계연도 예산, 법 집행관, 소방관, 응급 의료 서비스 회원, 교도관 및 재향 군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두 배로 확충

Kathy Hochul 주지사는 재향 군인과 오늘 법 집행관, 소방관, 응급 의료 서비스 요원, 교도관, 긴급 출동 대원을 포함한 제복을 입은 군인의 회복력 및 자살 예방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2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의 [뉴욕 자살 예방 센터 \(Suicide Prevention Center\)](#)를 통해 관리되는 [CARES UP](#) 이니셔티브는 기관 및 단체가 자살 예방 노력과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인과 응급구조대원들은 업무 중 엄청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CARES UP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금 지원은 주 전역의 조직과 기관이 회복력과 정신 건강을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이러한 개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고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ARES UP 프로그램은 각 분야별로 2년에 걸쳐 매년 3만 달러를 제공하여 각 기관의 자살 예방 노력과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2025년 회계연도 주 예산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두 배로 늘리는 데 성공하여 연간 200만 달러로 증대하고 OMH는 긴급 출동 대원에 대한 지원 자격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대응 기관은 자살 예방 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주제 전문가로부터 회복력, 정신 건강 및 웰빙, 자살 예방 및 동료 지원과 같은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고유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직원 및 가족을 위한 정신 건강 또는 건강 앱 구매, 건강 교육 주관, 내부 동료 지원 리소스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또한 [Onward Ops](#)를 통해 재향 군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수혜 단체는 복무 이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군인의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합니다.

정신보건국의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ARES UP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제공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정신 건강과 자기 관리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업무 중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직면한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지속적인 지원은 재향 군인과 응급 구조대원 및 그 가족을 돕겠다는 그녀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Samra G. Brouk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저는 소속 선거구와 주의 재향 군인들을 위해 중요한 정신 건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재향 군인은 뉴욕주 자살의 11% 이상을 차지합니다. 재향 군인은 생명을 구하는 더 많은 개입과 동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에 따른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여 재향 군인과 응급 구조대원을 위한 자살 예방 노력에 투자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essica Scarcella-Spanto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22명의 재향 군인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는 재향 군인 커뮤니티의 정신 건강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대변합니다. 뉴욕 상원의 재향군인 국토안보 군사위원회(Veterans, Homeland Security, and Military Affairs Committee)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재향 군인의 아내로서 저는 재향 군인들이 파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직면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종종 자신의 정신 건강을 희생하는 응급 구조대원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한 행동 촉구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뉴욕은 자살을 둘러싼 오명을 줄이고 위험에 처한 재향 군인과 응급 구조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Cares Up 이니셔티브를 통한 200만 달러의 자금은 기관과 조직이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CARES UP 어워드의 첫 번째 코호트는 2022년에 발행되었습니다. 작년에 CARES UP은 두 번째 코호트를 출범하여 EMS 스퀘드 3곳, 법 집행 기관 5곳, 소방서 1곳, 교도소 등 15곳 조직과 재향 군인을 지원하는 3개 단체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복을 입은 직원 직업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흔하며 이러한 개인은 자살 위험이 더 높습니다. [최근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응급 구조대원은 근무 중일 때보다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욕 재향 군인의 자살률은 민간인보다 거의 두 배나 높습니다. 이 비율은 2012년 이후 비교적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55세 미만의 재향 군인은 뉴욕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경험합니다.

뉴욕주 재향군인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Veterans' Services)의 Viviana DeCohe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향 군인과 제복을 입은 직원의 정신 건강과 복지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확고한 의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CARES UP 프로그램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보호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직면한 고유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CARES UP에 대한 주지사의 전례 없는 투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생명을 구하고 우리 영웅들의 회복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뉴욕의 재향 군인, 군인, 군인 가족, 그리고 보호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응급 구조대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매일 직면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응급 구조대원들도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안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형사 사법 제도과(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의 Rossana Rosad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경력을 바친 남성과 여성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DCJS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기본 교육 및 현직 과정에 포함시켜 우리 주의 법 집행 전문가가 엄청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교육, 도구 및 자원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